

**공간기호학으로 분석한 청마의 시세계
일상에서 신화까지 아우르는 문화텍스트**

《공간의 기호학》



이어령 지음
민음사/A5신/508면/18,000원

20세기 후반부터 공간은 문학과 예술, 그리고 문화연구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즈음해 기호학과 공간 이론을 바탕으로 청마 유치환의 시세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공간의 기호학》이 출간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기호학이나 공간이론을 논의하면서 이론소개가 주류를 이뤄온 우리 학계의 풍토에서 정밀한 작품분석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꼼꼼한 텍스트 읽기를 통해 청마 시의 언어와 의미구조 사이의 연관을 밝히고 그 이미지를 해독해 내면서, 각 구조들의 논리적 연계성을 통해 흔히 관념적이라고 일컬어져 온 유치환의 시세계에 구체적인 육체성을 부여한다. 특히 불노우·엘름스레·지라르·바슐라르·오토·슐츠 등에 의해 활발히 논의된 서구의 공간이론에서 음양상생설에 근거한 동양의 《주역》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의 다양한 이론을 총체화하는 저자의 해박함이 책 전체를 풍요로운 의미망으로 고양시키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기호론의 근간을 이루는 이항대립적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수평/수직공간의 특성과, 이 두 공간에서 세분화돼 나타나는

다양한 경계공간들의 양상을 구체적인 작품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공간의식이 인간의 신체를 중심으로 인식된다는 사실로부터 공간이 고정적인 실체가 아닌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저자는 공간과 시간이 어떻게 하나의 시 텍스트 속에서 어우러지는가, 즉 시간이 어떻게 시에서 공간화되는가의 과정을 생생하고 선명하게 그려 보인다. 저자는, 모든 기호의 생성은 미분절 상태의 연속체가 이산적 단위의 질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너무 자동화되면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을 구속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호의 해체나 재생산까지도 매개항을 통해 조정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공간의 형성체계가 '세계의 상'을 구현한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해 일상적 세계에서 신화의 세계까지 포괄하는 문화 텍스트를 이룩해냈다는 점이다. 이로써 저자는 랑그와 파롤, 이항대립과 분절, 매개항 등의 분석틀 때문에 자칫 건조하고 도식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기호이론을 그 특유의 예리한 감성과 능동적인 독서행위를 통해 행복한 책읽기를 가능하게 해주기에 더욱 감동적이다. 또한 이 책은 기호론의 용어나 개념들을 해박한 지식과 명쾌한 논리로 정리해줄 뿐만 아니라, 각주를 통해 총망라된 공간이론과 기호학에 관한 저작들을 체계화함으로써 또 하나의 즐거운 수확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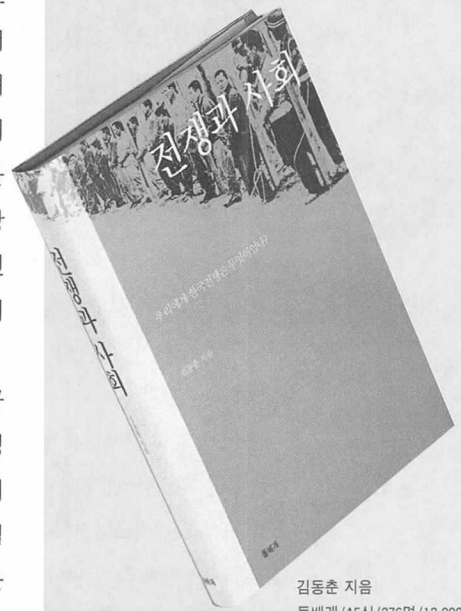
일찍이 마르셀 프루스트가 "모든 것은 기호다. 또한 전언(傳言)"이라고 했거니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 기호론과 작품분석의 결과는 문학뿐만 아니라 신화·건축·미술·무용 등 다른 공간예술까지 확대, 심화해 적용할 수 있다. 종횡무진한 상상력으로 공간의 시학에서 독자에게 즐거움을 선물한 바슐라르가 프랑스에 있었다, 논리와 감성의 교직(交織)이 그 절정의 꽃발을 이루는 이어령의 《공간의 기호학》은 탁월함에 있어서 그에 비견할 만한 역저다.

김현자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 저서 《한국시의 감각과 미적 거리, 한국 여성 시학》 《시와 상상력의 구조》 《한국 현대시 읽기》 외.

**'정치적 현상'으로 해석한 한국전쟁
민중의 전쟁 체험에 주목해**

《전쟁과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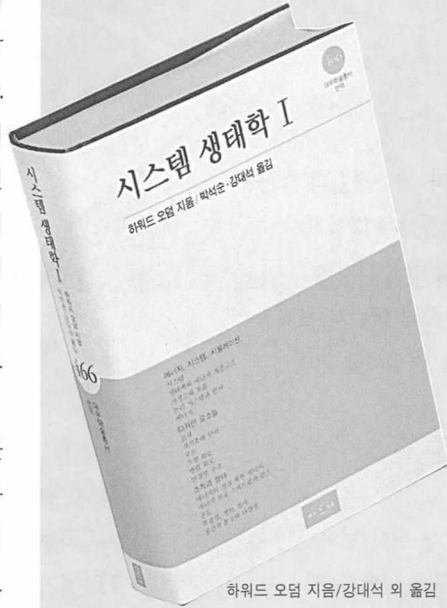
김동춘 지음
돌베개/A5신/376면/13,000원

한국전쟁 50주년을 맞는 해면서도 남북정상회담에 올 6월 25일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지나갔다. 냉전적 대립의식을 부추기는 관변 행사들이 축소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한국전쟁에 대한 관심의 약화로 귀결된다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한국전쟁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기념의 방식들이 마련돼야 할 때다.

김동춘 교수의 《전쟁과 사회》 출간은 이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이 책은 기존의 한국전쟁 연구서와는 달리 전쟁이 남긴 사회적 효과, 기억의 독점을 둘러싼 싸움, 나아가 전쟁과 국가권력의 관련성 등을 문제삼은 책이다. 역사적 사실에 무심하지 않되 실증적인 사실확인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한 야심적인 책이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전쟁이야말로 이승만 정부가 반쪽국가로서 존립근거를 강화하고, 일반 민중도 특정한 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국민적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 결정적 계기였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전쟁 과정에서 나타났던 '국가의 존재의미, 주권의 위상, 미국의 문제, 국가폭력과 인권' 등의 문제는 지금도 국가와 관련한 핵심적인 물음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에너지론에 기반해 생태계 분석
학제간 연구로 보편성 확보해**

《시스템 생태학(I·II)》



하워드 오덤 지음/강대석 외 옮김
아르케/A5신/700면 내외/36,000원 내외

1935년 영국의 식물생태학자 텐슬리가 제안한 '생태계'란 단어는 처음 몇년 동안 그다지 주목 받지 못했다. 두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이뤄진 물리적·화학적 분석기법 및 전략적·수학적 접근, 그리고 체계이론의 발달은 이 개념이 학문 세계로 들어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도입된 군사수학과 모형기법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더욱 발전했고, 전후에는 체계공학과 함께 우주비행, 생태학, 인구, 사회경제, 그리고 행정관리 등의 분야에서 응용됐다.

이 시기에 지역주의를 주창한 아버지 하워드 W. 오덤 교수의 권고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결고리 찾기를 꿈꾸던 오덤 형제는 생태계 개념에 열역학 이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한다. 그 이면에는 새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 종과 군집, 그리고 에너지 흐름과 물질순환을 생태계 발달 특성과 연결시킨 형 유진 P. 오덤의 학문적 역량과 2차 대전 당시 기상장교로 활동하면서 익힌 동생의 수학적 훈련과 창의력이 상승 작용했다.

1980년대 말 스웨덴 왕실이 노벨상에 버금가는 크라프드상을 이 형제에게 수여할 때 미국 조지아주의 한 신문은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신문

기사는 단정한 차림의 형과 대조적으로 하와이 셔츠를 입고 나타난 엉뚱하고 자유분방한 아우의 모습을 기술했다. 그 때 아우인 저자는 11살이 많은 형과의 관계를 대충 이렇게 묘사했다. 처음에는 형이 숲으로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생태학에 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줬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형에게 가르쳐 준 것이 더 많다. 형은 다른 책에서 에너지론에 관해서는 동생에게 의존했다고 이미 실토한 바 있다.

이 책은 저자가 1966년부터 1981년까지 대학에서 맡았던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내용의 보편성은 저자가 평생 동안 갈고 닦은 시스템 이론과 에너지 언어에 기반을 둔 생태계 분석에 있다. 한글판의 제1권은 체계이론과 에너지 언어의 원리, 그리고 정보와 관련된 저자의 연구결과들을 재구성했다. 제2권은 1권에서 다룬 원리들을 바탕으로 자연생태계와 인간생태계를 아우르는 체계와 생태적 현상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인 생산자와 소비자, 생태계, 천이, 경제계와 국가, 도시 체계, 지구생태계가 하나씩 다뤄진다. 과학·공학·환경정책이라는 다양한 주제를 넘나드는 내용은 사회학자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형과 함께 다양한 학문분야의 보편성을 찾아내고 쫓아간 학문분야 사이에 가교를 놓으려는 노력과 함께 그의 자유분방한 학문 태도를 반영한다.

이 책의 한국어판을 읽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번역자와 책을 낸 출판사에게 결코 희망적인 말을 할 수 없다. 거의 1500면에 달하는 방대한 부피만큼 용어와 내용에 대해 고민한 역자들의 시간은 스스로 생각을 다듬은 이상으로 보상되지 않으리라. 역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결코 독자가 많지 않더라도 빈약한 우리 생태학 분야에 하나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이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저서 《떠도는 생태학》 《경관생태학》 외.

분단국가의 정치적 제도화는 한국전쟁에 대한 특정 해석의 공식화와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한다. 피난, 점령, 학살이 주요한 장으로 돼 있는 이 책의 특이한 구성을 통해 지배층과 일반 민중의 전쟁체험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전자만이 공식화돼 다수 민중의 상이한 기억과 경험들을 억압하는 '지식권력'이 돼왔다는 점이 지적돼 있다. 특히 '민중·민중·인권·여성의 입장'에서의 체험이 억압되고 배제돼 왔음을 지적하고, 이런 '억눌려온 기억들의 해방'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의사소통과 연대의 필수조건이라고 본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전쟁에 대한 현재의 기억이 어떻게 분단체제를 지탱하는 문화적인 힘으로 작용하는지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전쟁과 국가형성의 이 모순적인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근대국가로 집약되는 문명화의 한계'를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논지는 근대국가형성을 무조건적인 선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대한 중요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분단의 극복도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통일국가인가'라는 물음에 진지하게 대응하면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장의 제목을 '국가주의를 넘어서'라고 붙인 것은 아마도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고자 한 것 이리라.

전체적으로 볼 때, 서술의 치밀함이라든지 논지의 정합성이라는 점에서 다소의 아쉬움이 없지 않고, 국민범주와 민족범주의 의미있는 구별이 보이지 않는 점이나 식민지 경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는 한계는 추후 보완됐으면 싶은 부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책은 한국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바람직한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재구성해야 할 것인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역저임에 틀림없다.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저서 《한국 근대국가 형성과 농민》, 논문 《근대 한국의 역사적 성취와 한계》 《한국근대사와 민족정체성》 외.